1960년대 초반 대구의 '영세민':
'산체스네 아이들'과의 비교*

이동진**

〈차 례〉

1. 서론
2. 『영세민실태보고서』와 『산체스테 아이들』의 비교의 의의
3. 조사 지역 개황
4. 극심한 가난,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
5. 지역공동체 없는 가족 공동체
6.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62년에 조사된 대구시의 한 빈민 지역에 관한 양적 연구(실태조사보고서)를 1956년에 조사된 멕시코시티의 한 빈민 지역에 대한 질적 연구와 비교하면서 다시 쓰기를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한국 대도시의 도시 빈민을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고, '미약한 지역공동체 속에서 강력한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

* 이 논문은 2013년 10월 23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도시사부(도시사학회) 소수자, 이민, 도시공동체"에서 발표되었다.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 이것은 한국의 빈민들이 사회 통합이 아니라 가족 통합에 의해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며, 한국의 빈민가족이 '개발 국가'에 조응하는 '개발 가족'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개발 가족'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었을까. 성공은 탈빈곤율이 '산체스네의 아이들'보다는 더 높았다는 것이지만, 실패는 '성공'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개발 국가'와 '개발 가족'의 짝에 의한 경제 개발 추진은 빈부 격차를 줄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의 일부가 탈빈곤에 성공하였으며 그 부담을 가족의 다른 일부가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개발 국가'와 '개발 가족'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개발 국가와 개발 가족에 의해서 비용을 더 많이 지고 수익을 더 적게 가져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그리고 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치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영세민, 신암 5동, 산체스네의 아이들, 빈곤의 문화, 개발 가족

1. 서론

한국에서 사회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이었다.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의 예를 보면 1957년 2월에 4학년 학생 전부가 사회조사 실습 차 안동 하회마을(하회 유씨촌)에 가서 며칠간 민박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경비 문제로 미완상태에서 중지된 적이 있었다.[1] 이 시기에 사회조사가 실시되게 된 데에

1) 배용광, 「한국사회의 階層攷」,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18호, 1965, p. 446.

는 이만갑과 그의 영향을 받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영향이 컸다. 이만갑이 1956년 가을 1년간 미국 코넬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미국 사회학계의 실증적·경험적 조사연구 기법을 소개하였다.[2] 1956년 10월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가 중심이 되어 한국사회학회 창립 준비에 착수하였다. 1957년 5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회장 이상백), 10월에 제1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배용광·최홍기가 「동족부락의 일 연구: 안동하회류씨부락」을 발표했다.

사회조사방법론이 사회학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은 1958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연구실' 명의로 『사회학보』를 창간하였다. 편집인과 편집위원은 김경동, 강신표 등 모두 4학년 학생들이었다.[3] 권두논문으로 이만갑의 「사회조사방법에 관한 그릇된 견해」가 실렸다. 1958년에 창설된 이화여대 사회학과는 1960년에 학생사회학회를 창립하고, 1961년 1월에 이대 사회학과 명의로 『사회학연구』를 창간했다. 『사회학연구』는 『사회학보』와 비교해서 조사연구 발표가 훨씬 더 많았다.[4]

1950년대 후반에는 일부 대학생들이 '학회'를 만들고 사회 실태

---

2) 이만갑은 1960년에 『한국 농촌의 사회구조』를 발간하여 한국의 농촌사회학을 주도하였고, 또한 1963년에는 『사회조사방법론』을 출판하여 사회조사방법 기법을 한국학계에 소개하였다.

3) 편집인 정계훈은 이 잡지를 '사회학을 위한 순수학지의 첫 시도'라고 자부했다. 한국사회학회 제1회 연구발표회가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에서 개최되었을 때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생으로서 참가했던 한남제의 회고에 의하면 점심시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인 강신표와 사회조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과 50년사』, 2004, p. 196.

4) 1963년에 간행된 『사회학연구』 제2호에 발표된 학생사회학회 연구부 명의의 「이대생의 계층조사」는 1963년 6월에 이대 사회학과 2학년 학생 34명이 조사에 참가해서 이대 학생 621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벌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8년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결성한 '사회법학회'가 실시한 일련의 실태조사로서 1958년 인천부두 자유노련의 '십장 제도'의 실태와 부산부두노동자의 실태 조사, 1959년 영월탄광의 답사, 1960년 대구 제일모직과 미8군 노무자 방문 등이었다.[5)]

1960년대 전반에는 사회학계에서 도시지역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한국사회학회가 주관해서 1961년에서 1962년까지 국제적인 공동사업으로 실시한 「사회적 계층화와 사회이동」 연구가 자극제가 되었다. 1962년 여름에는 이상백(김채윤 협력)이 서울, 대구, 전주의 3개 도시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6)] 대구시의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1963년에 경북대학교 사회학교실에 의하여 중간계급의 해명에 중점을 둔 분석이 계층분석이 시도되어, 류시중이 일부 내용을 발표하였다.[7)] 대구시의 계층연구는 본래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의 연구지도과정(권규식이 주로 활동)으로서 시작되었다.[8)]

1962년에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교실이 대구시 신암 5구의 빈민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63년 3월 3일에 『영세민실태 조사보고서: 대구시 신암동 5구』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역개황, 세대조사, 이동조사와 의식조사, 조사 보유(補遺), 전망과 대책의 순서로 구성되었다.[9)] 1963년에는 노창섭이 『한국도시지역사회

---

5) 서울대학교 60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60년사』, 서울대학교, 2006, p. 838.

6) 배용광은 같은 시기에 한국사회학회 주관의 조사를 참작해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교실에서 「한국 도시사회에 있어서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이상백의 조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7) 류시중, 「화이트칼라의 객관적인 지위」,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논문집』 제7호, 1963, pp. 397-411.

8) 배용광, 앞의 논문, 1965, p. 446. 권규식은 1964년 2월에 「중간계층연구」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 『한국사회학』 제6호, 1970-1971, p. 100.

9) 표지는 경상북도, 이면은 '조사: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발행:

의 연구: 서울 신촌을 중심으로』를,[10] 그리고 황성모가 「한국공업노동의 사회적 고찰(실태조사보고서)」를 각각 발표하였다.[11]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조사연구는 사회학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가 분석하려고 하는 『영세민실태조사보고서』는 빈곤 실태와 그것의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술성'과 '공공성'을 성취한 사회조사연구의 하나의 전점이었다. 한국 사회학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사연구가 함의하는 '공공성', 다시 말하면 현실 사회와의 관계-수신이든 발신이든-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직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의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대 초반의 대도시의 영세민의 빈곤 상황을 당시에 조사된 조사보고서를 '다시 쓰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2]

경상북도 발행', 머리말 저자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교실'의 명의로 되어 있다. 1962년에 경북대학교 사회학교실에서는 또한 최홍기가 양회수, 류시중, 배용광 교수의 협력을 얻어 촌락사회의 구조분석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여 한국사회학회 연구발표회에서 중간발표를 하였으나 역시 경비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으며 1963년 3월에는 최홍기가 미국에 연수를 갔기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배용광, 앞의 논문, p. 446.

10) 1960년에 출간된 『사회학보』 제3집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취득하고 귀국한 노창섭과 홍승직의 학위논문 요약을 실었다. 노창섭은 1958년에 신설된 이화여대사회학과에, 홍승직은 1963년에 신설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각각 부임하였다.

11) 배용광은 황성모의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대학의 황교수가 한국의 공업노동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것은 확실히 학계에 귀중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배용광, 「산업사회학 연구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상백박사 회갑기념 논총』, 1964; 『사회학산책』, 형설출판사, 1997, p. 72.

12) 대도시의 영세민에 관한 조사로서는 1940년에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의학부 학생)가 서울 동부의 용두정, 제기정, 남부의 한강, 영등포, 서부의 아현정, 홍제정, 북부의 돈암정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토막민 556호

2.『영세민실태보고서』와『산체스네의 아이들』의 비교의 의의

『영세민실태보고서: 대구시 신암동 5구』는 1962년 3월 하순 경 경상북도 당국으로부터 대구시내의 영세민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뢰를 받아 경북대학교 사회학과가 실시한 조사의 보고서이다. 조사책임자는 양회수・최홍기・류시중・배용광이었지만 실제적인 책임자는 양회수와 류시중이었다. 류시중은 조사 항목에 포함된 직업 이동 자료를 가지고 계층 연구를 담당하였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월 말 경에 조사표 원고정리를 일단 완료하고 5월에 수정을 거친 후 5월 12일과 13일에 학생 4명과 지도교수 2명이 현지를 답사하여 동장・반장 등과 〈인터뷰〉 및 그곳 주민들과의 접촉에 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의 미비점을 보정하였다. 6월 4일과 5일에 조사원 34명이 124세대에 대해서 〈세대조사표〉와 〈의식조사표〉를, 6월 23일에서 25일까지 120세대(4세대는 타 지역으로 이동)에 대해 〈지구조사표〉, 〈이동조사표〉, 〈부대조사표〉를 각각 조사하였다.[13] 1차 조사는 4학년 14명에 의해서 집계가 이루어졌고, 2차조사는 3, 4학년 학생을 총동원하여 집계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여름방학을 맞아서 몇 학생만이 남아서 계속 집계를 행하여 9월 초에 종결되

를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과 위생 실태 조사'가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였다. 京城帝大 衛生調査部 編,『土幕民の生活・衛生』, 岩波書店, 1942;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엮음, 박현숙 옮김,『1940년, 경성의 풍경: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2010. 이 자료를 주로 이용한 연구로서는 김경일,「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사회와역사』제3집, 1986, pp. 203-257가 있다.

13) 조사항목수는 세대조사표가 22개, 이동조사표가 20개, 의식조사표가 27개, 지구조사표가 13개, 부대조사표가 10개로 모두 92문항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조사표와 의식조사표의 자료는 거의 분석하지 못하였다.

었다. 그 후 분석, 정리, 집계표 작성, 보고서 작성 등 마지막 단계가 남았으나 주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온 4학년 학생들은 국가고시 졸업시험 준비로 조사에 협력할 수 없었고, 3학년 학생들 또한 본교에서 여름방학에 실시한 5개 자매결연부락의 사회조사통계에 전념해야 했으므로, 해를 넘겨 2월에야 그 결말을 보게 되었다.[14]

조사 의식 내지 문제 의식은 '빈곤지역의 실태를 광범위하게 밝혀 보자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영세민지역을 과학적 경험적인 조사에 의하여 실태를 밝혀 본 것은 우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1942년 한강변에 자리 잡은 토막촌에 대한 조사가 그 시초로 보여지고 있다. 이 조사는 그 대상이 한 지방도시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조그마한 한 지역에 한정되었기는 하나 영세민에 관한 사회조사로는 그 후 처음인 시도이기 때문에 다소 무체계적인 결함을 내포한다 하더라도 〈익스텐시브〉하게 문제를 벌려 광범위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자료적인 소재를 이 분야에서 제공하는 것도 〈파일롯 스터디〉로서의 의의를 減傷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8-9)."

조사의 논점으로 연구자들은 1차적 빈곤과 특수적 빈곤을 구분하여, 특수적 빈곤의 해명에 초점을 두었다.[15] 곧 "이 지역의 빈

14)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영세민실태보고서: 대구시 신암동 5구』, 경상북도, 1963, pp. 18-19. "그 사이에 참고·보충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청, 각출장소, 시립병원, 파티마병원, 파출소 등을 틈이 나는 대로 왕래하였고 현지에도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일부 조사원들은 그곳 주민들과 친숙한 사이가 되는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흐뭇한 면도 있었으나 그 사이의 고충애로도 이에 못지 않았다. 조사대상지의 주민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협력을 해주면서도 그들의 당국에 대한 과도한 의뢰심이 작용했음인지 본인들의 빈곤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의아심이나 생활의 고달픔에서 만사가 귀찮다는 식으로 협조를 아끼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반응 예컨대 구호곡의 배급을 조사원에게 강청하는 등 조사의 정확을 기함에 있어서나 그 진행상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같은 논문, p. 19.

15) 이 구분은 〈라운트리〉의 제1빈곤과 제2빈곤, 〈웨브〉의 절대적 빈곤과 상

곤이 개인의 사회에의 부적응인 개인적 원인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또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인가를 밝히는데 그 근본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고, "우리들은 그 문제성을 한정하여 특히 그들의 사회적 구성이나 지역사회형성의 제약성을 문제로 삼고자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빈곤이라는 현상을 가족해체의 현상과 연관시켜 개념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본 조사의 중요한 가정의 하나이다"라고 하고, "가족구성의 결함 가족협동요건의 결손은 그같은 빈곤의 근본적 요인이며 이러한 원인에서 초래되는 결과는 다시 역작용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지역사회의 취야성이 생활무대의 협소를 의미한다면 가족구성의 결함은 생활의 기본자세의 불건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기본적인 조사 의도의 하나로서 "이 지역의 궁핍화한 도시 하층사회의 동질적인 빈곤층의 일단을 시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인간의 속성이나 그들의 생활속성이 특히 편기된 Slum인가를 밝히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에서 slum의 석출을 시도하는 것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 하층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말 그대로 특이한 slum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오늘의 체제하에 점차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slum의 문제성을 밝히는데 다소간의 모색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도시 슬럼 연구의 논점과 방법론을 참고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도시 슬럼 연구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도시 슬럼 연구는 노창섭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족사회사업센터 지원(연구조교 정수복)으로 조사

대적 빈곤과 유사하다.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9.

를 실시하여 1965년에 비매품으로 발행한 「도시영세민 지역사회 조사 자료집계표: 서울동부이촌동을 중심하여」이 대표적인 사례였다.[16]

대구시는 아마도 한국에서 슬럼에 관한 연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연구와 1980년 중반과 1990년대 중반의 연구가 각각 있다.[17] 이들은 류시중과 그의 제자인 박경구(1967년 석사 졸업)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류시중은 사회조사방법을 양회수로부터 배웠다. "류 교수가 사회학에 대한 확고한 발판은 1962년 가을에서 다음해 초에 걸친 대구시의 「영세민실태조사」를 통하여 웬만큼 다져진 것이 아닌가 싶다. 마침 그 무렵에는 동란이전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양회수 선생이 동료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조사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뚜렷이 양선생의 '리더십'은 참으로 선도적인 것이었으며 아마 류 교수는 이에 도움을 받은 바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리하여 1960년대 중엽 이래 알찬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18]

---

16) 1964년 12월에 서울시 동부이촌동 723세대에 대한 조사이다. 부록에 극빈층(lower-lower class)에 속하는 197세대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는 양적 연구로서 1960년대 전반에 이루어진 대도시 빈민에 관한 대표적인 조사이다. 노창섭은 이 조사를 분석하여 「도시 Slum 지역의 사회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대문화논총』 제10호, 1967, pp. 111-138을 발표하였다.

17) 이만갑·허버트 R. 베린저 편저, 김영화 외 번역, 『전환의 도시 대구』, 양서원, 2012(1971); 류시중, 『한국도시가족의 빈곤유형』,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논총』 제3집, 1972; 「한국도시가족의 빈곤유형과 구호대책」, 대구시, 『시정연구』 제5호, 1974; 박경구, 「도시 빈곤지역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2호, 1985; 「빈곤문화의 존재유무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제4호, 1986; 「빈곤문화의 재고찰」, 『사회과학논총』 제12호, 1993;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지역 빈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 연구」, 1994.

18) 배용광, 「회고사」, 우보류시중박사정년기념논총발간위원회, 『우보류시중 박사정년기념논총』, 1991. 『영세민실태보고서』의 요약본이 잡지 『세대』 1964

양회수는 1947년 10월 이상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전임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사회조사(1947년 개설), 농촌사회학(1947년 개설), 사회통계학(1952년 개설) 과목을 담당하였다.[19] 양회수는 와세다대학에서 사회과를 중퇴한 후에 도쿄(1917년에 오사카에서 설립되어 1937년에 도쿄로 이전)에 있는 오하라 연구소(大原社會問題研究所)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회통계를 담당했다고 한다.[20]

년 7월호에 배용광, 「인간산맥의 저변을 가다② 내일에 사는 습지의 주민들: 대구시신암동오구의 빈민굴에 대한 실태조사보고」로 발표되었다. 배용광은 부기에서 "본고는 동료인 류시중 교수의 헌신적인 협력 없이는 작성될 수 없었음을 특히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만갑의 회고에 의하면 이만갑이 1969년 7월에 한국연구국제협의회(영문약칭 ILCORK)의 최초의 사업으로 '대구연구세미나'를 주관하면서 대구의 사정에 밝고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기업체 그 밖의 사회조직체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학자가 꼭 있어야 했는데, 그런 어려운 역할을 류시중이 담당해 주었다고 했다. 대구연구세미나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사전세미나를 갖고 대구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시 서울에서 사후세미나를 가지고, 1971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Lee Man Gap ed., A City in Transition: Urbanization in Taegu, Korea, The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for Research on Korea(Seoul), 1971. 이만갑, 「류교수와 만남」, 우보류시중박사정년기념논총발간위원회, 앞의 책, 1991.

1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오십년사 간행위원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오십년사 1946-199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96, pp. 52-53.

20) 최홍기, 「입학에서 전쟁까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60주년 편집위원회 편, 『다시 출발선에 서서』, 선인, 2006, p. 79. "양회수 선생은 6·25가 나면서 집이 폭격을 당하여 갖고들이 큰 화를 당하였다. 너무 어렵게 되어 나중에 김두헌 선생이 전북대 총장으로 있을 때 전북대 교무처장으로 불렀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무척 어렵게 살았다." 양회수는 1960년에 『사회학요강』(신구문화사), 1967년에 『한국 농촌의 촌락구조』(고려대학교출판부)를 출간하였다. 와세다대학 조선유학생동창회가 발행한 「1939년도 회칙 및 회원명부」에는 특별회원인 이상백은 1927년 졸업에 社哲(사회철학과), 손진태는 사학, 조헌영은 高師(고등사범)로 나와 있고, 보통회원인 최문환과 양회수는 1940년 졸업에 각각 經(경제) 3학년, 社會 3학년으로 나와 있다. 1940년 졸업에서 사회 3학년은 3명이, 2학년은 1명이 있었다.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사회학과 강의도 한 적이 있

1980년대까지의 대부분의 도시 빈민 연구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연구였다. 도시 빈민에 관한 질적 연구로서는 1961년에 출판된 오스카 루이스의 『산체스네 아이들: 어느 멕시코 가족의 집단자서전』이 유명하다.[21] 루이스는 1956년 10월 멕시코시티 중심지에 위치한 700명이 거주하는 까사그란데라는 커다란 단층 연립주택으로 된 베씬다드(빈민가)를 연구하던 중에 헤수스 산체스(쉰 살)와 그의 네 자식들(아들 마누엘 서른두 살, 로베르또 스물아홉, 딸 꼰수엘로 스물일곱, 마르따 스물다섯)을 만났다.[22] 루이스는 이들 각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가족생활의 내면상을 드러나게 하였다.

이 연구는 루이스의 연구에 나오는 '산체스네의 아이들'과 신암5구 빈민지역을 비교할 것이다.[23] 한국은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부격차 2위이고, 1위가 멕시코이다. 따라서 한국과 멕시코의 도시 빈민을 비교하는 것은 현재 경제개발기구 회원국 국

는 하기락은 철학 2학년이었다. 早稻田大學 우리동창회 편, 『한국유학생 운동사: 早稻田大學 우리동창회70년사』, 1976, pp. 6-16.

21) 루이스, 오스카, 박현수 옮김, 『산체스네 아이들』, 지식공작소, 1997 (1978, 1쇄).

22) 산체스네 가족은 까산그란데를 연구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으로 뽑아낸 71가구 중의 하나였다.

23) 질적 연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번역자인 박현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회계층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범주간의 관계가 사회구조라면, 사회문제란 다름 아닌 계층 간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와 동일한 범주 내의 사람들끼리 사귀고, 통혼할 때 범주간의 울타리는 더욱 굳어져 각기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층 간의 대화가 더욱 단절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사람들은 타 계층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격체로서 지각하지 않고, 숫자로써 표시되는 불특정 다수로서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학술적인 연구에도 반영되며, 각 분야의 사회과학은 이들의 사회나 문화를 몇 개의 변수로 처리하여 통계화 하는 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을 숫자로써 표현하고 나면 그 집단의 양화된 특성은 나타날지언정 정작 그 사람들의 실체는 허깨비가 되어 버린다." 루이스, 앞의 책, 1997, p. 38.

가 중에서 도시 빈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두 나라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의 도시 빈민을 비교하는 것이다.[24]

1962년에 실시되었던 대구 영세민 조사는 설문 조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체스네' 아이들과 같은 이야기를 찾을 수 없다.[25] 그러나 당시 대구 영세민에 대한 이야기로서 적어도 두 사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964년에 발행된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이윤복의 수기이다. 이윤복이 명덕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와 세 동생(순나, 윤식, 태순)과 함께 살면서 거리의 다방을 전전하면서 껌팔이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쓴 일기(1963년 6월 2일에서 1964년 1월 19일까지)가 출판된 것이다. 이 일기는 김동식 교사에 의해서 발견되고, 박용웅(박진

24) 서형원・하승수, 『행복하려면 녹색』, 이매진, 2014, p. 113. 『OECD 2014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1년 한국의 빈곤차이 비율은 39%(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39%가 필요하다)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사회복지 공공지출은 ㅎ예의 9.3%로서 멕시코(7.4%) 바로 위인 3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32개국 평균치인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뉴시스』, 「'임계점' 이른 빈부격차, 폭발하기 전에 해소하라」, 2014.6.23. http://news.donga.com/(검색일: 2014.9.10.)

25) 『산체스네의 아이들』이 번역 출판된 직후인 1980년대 초반에 서울시의 재개발지역, 특히 사당2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자환, 「서울 사당 2동 지역의 도시화 과정」,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3호, 1982; 허석렬, 「한국 무허가 정칙지의 고용구조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사회학연구회, 『한국사회연구』 제6집, 1982; 김록호, 「도시무허가 정착지의 일차보건 의료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5. 특히 대학원생 남녀 조사원 2명이 1986년 7월부터 1988년 8월(남자 조사원은 1987년 3월, 자진철거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주가 시작된 시점과 90퍼센트 이상의 주민이 이주한 시점)까지 사당 4구역 제2공구에서 상주하면서 참여관찰의 방법을 추가해서 연구한 조은・조옥라,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의 현장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1992, 4쇄)와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조은이 철거 후 25년 간의 '정금선' 할머니 일가, 아들 수일, 손자녀 영주, 은주, 덕주 3명의 삶을 기록한 조은,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해의 기록』, 또하나의문화, 2012는 한국판 『산체스네의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석)이 서울에서 3개월 간 노력한 끝에 신태양사에 의해서 출판될 수 있었다. 이 수기는 출간 1년여 만에 6판을 인쇄할 정도로 베스 트셀러가 되었으며, 1965년에 김수용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었다.[26]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전태일의 수기이다.[27] 전태일은 이윤복과는 달리 부모님이 다 계셨지만 이윤복과 마찬가지로 4남매의 장남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에 잠시 다녔을 뿐이었다.[28] 전태일은 1948년에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이사를 간 후 9세 무렵에 남산 육교 밑에서 살면서 비정규 교육과정인 남대문공민학교에 2학년에 편입을 하였다. 부친은 조그마한 천막집 단칸방에서 재봉틀을 한 대 놓고 삯바느질을 했다. 전태일은 다시 13세에 남대문초등학교 편입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몇 끼를 밥을 못 먹고 학교에 가게 되자 어느 날 학교에서 오는 길에 신문장사를 시작했다. 전태일 가족은 이태원 조그마한 산마루의 방 한 칸에서 살다가 용두동의 판자집 좁은 방 한 칸으로 이사를 갔다. 전태일은 4학년을 조금 배우다가 중퇴를 했다. 11세가 되는 남동생도 3학년을 중퇴하고 전태일을 따라 솔, 조리 등 물건들을 조그만 C레이쏜 박스에 담아가지고 동대문시장이나 중앙시장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했다. 밤에는 동대문상고 옆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권선생님이 지도하는 야간학교에 입학하여서 틈틈이 공부를 하였다.

그 후 전태일은 1년 이상 부산 등지에서 가출 생활을 한 후 대구의 할머니(큰 아버지) 집에 왔다가 마침 대구로 내려온 가족과 합류하여 집안일을 거들다가 "미싱을 돌리는 데도 제법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인" 1964년 5월(16세)에 이윤복이 다녔던 명덕초등

---

26) 『동아일보』 1960.3.30. 조간광고; 김승구, 김승구, 「아동 작문의 영화화와 한·일 문화 교섭」, 『한국학연구』 제41호, 2012, pp. 149-150.

27) 전태일은 1969년 가을 무렵 자신의 살아온 길을 소설 형식으로 적어 놓은 어린 시절 회상수기를 남겼다.

28) 전태일 지음, 전태일기념사업회 엮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전태일의 일기·수기·편지 모음』, 돌베개, 1995(1988), pp. 27-28.

학교에 세를 들었던 청옥고등공민학교를 또한 잠시 다녔다. 청옥공민학교에 다니던 반 년 남짓한 시절은 무척 힘들기는 했지만 단짝 친구와 존경하는 교사를 만날 수 있었던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29]

이윤복은 전태일이 살던 남산동에서 살다가 방세를 내지 못해서 앞산 밑 대명동에 있는 누가 염소를 먹이려고 지어 놓은 움집(외양간)으로 이사하였다가 며칠 후에는 움집과 마주 붙어 있는 주인이 염소를 먹이려고 살림집으로 지은 방 두 칸 중 한 칸을 한 달 방세 200원을 주고 살았다.[30] 이 연구는 같은 시기의 대구시의 빈민들의 삶에 관한 양적 연구에 숨겨져 있는 이윤복과 전태일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자 한다.

3. 조사 지역 개황

1940년 대구부의 토막 및 불량주택 수는 각각 159가구(493명),

---

29) 전태일, 앞의 책, 1995, pp. 45-46. "하루 일과가 마치 기계처럼 꽉 짜여서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없었다. 아침 6시에 기상하면은 같은 반 학생인 재철이네 집에 원섭이와 셋이 모여서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앞산 비행장까지 마라톤 연십(습)을 했다. 앞산까지 뛰어갔다가 우리 집까지 오면 식사를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는 재봉일을 도와 가면서 벽에 써붙여둔 단어를 왜우다가 손끝을 대리미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 그런 힘든 일 속에서도 실장이므로 특과활동이 많으므로 틈틈이 특과활동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 할 수도 없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계속하고 학교에 가면 그때가 하루일과 중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다… 1학년 2학기 접어들어서는 한달 가량을 어떻게 허등거려는지 아침마다 세수할 때는 코피로 세수대야를 벌겋게 물들였다."

30) 이윤복, 앞의 책, 1965, p. 17, p. 26. 이윤복이 이주한 앞산 앞은 대명3구에 속했다. 〈대구시내의 영세민의 집단거주동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14.

1,343가구(4,496명)으로 대구 인구(17만 8천명)의 2.8%를 차지하였으며, 1960년에는 대구시의 불량주택 수가 총 인구(67만 8천명)의 4.9%를 차지하였다. 대명동, 침산동, 신암동, 고성동 등에 4-8평의 6·25 피난민 정착촌이 남아 있었다.[31] 구호 대상자 수는 1941년에 78,2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6.1%, 1952년에 65,746명으로 전체 인구(406,966명)의 16.2%, 1957년에 78,938명으로 전체 인구(609,316명)의 13.0%, 1963년에 66,835명으로 전체인구(761,956명)의 8.7%, 1968년에 75,137명으로 전체 인구(961,657명)의 7.6%에 달하였다.[32]

1961년 12월 31일 현재 대구시 동별·호별 상황을 보자. 영세민(20등 이하까지의 납세자) 집단거주동은 13개동이고, 총 세대수는 17,414명이었으며, 납세자 수는 5,488명으로, 전체 세대 수의 32.0%를 차지했다. 이 13개 동의 납세자 비율을 보면 신천5구(1.8%), 신암5구(7.4%), 복현동(9.0%), 신천1구(11.3%), 대명3구(15.9%), 산격3구(23.8%), 비산1구(31.6%), 동인3가(42.2%), 칠성동2가3구(50.3%), 달성2구(53.0%), 대신동2구(57.5%)의 순서였다.[33] 이를 신암5구는 신천5구(동부출장소 관할 내)를 제외하고 대구시에서 가장

---

31) 배숙희, 「빈민지역의 형성과정과 공간분포」,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지역 빈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 연구』, 1994, pp. 8-9.

32) 1947년, 1952년도는 영남일보사, 『경북연감』, 1957년은 대구일보사, 『경북종합연감』, 1963년, 1968년은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배숙희, 앞의 논문, 1994, p. 10.

33) 1961년 12월 31일 현재 신암5구의 납세자 등급분포를 보면 5등 이하가 55세대, 6-10등이 12세대, 11-20등이 6세대, 21-30등이 2세대가 있었다. 31-40등과 41등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빈곤지역 가운데서 41등 이상이 있는 곳은 동인3가 1세대, 대신동2구 5세대가 있었고, 31-40등이 있는 곳은 동인3가 7세대, 신천1구에 1세대, 칠성동2가3구에 11세대가 있었다. 신천5구는 5등 이하가 4세대, 6-10등이 8세대, 11-20등이 2세대에 불과하였다. 비산2구, 대명3구, 복현동, 산격3구는 21등 이상은 한 세대도 없었고, 21-30 등이 신천1구는 1세대, 비산1구는 3세대, 대봉5구는 1세대가 있을 뿐이었다.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13.

빈곤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세민 가운데 농가는 신천 1구에 37명, 신천 5구에 95명, 신암 5구에 79명, 복현동에 326명, 산격 3구에 48명으로 모두 585명이었다.[34]

신암동은 해방 이후 신암동 1구에서 5구로 분할되었는데 신암동 5구는 동서로는 소위 큰고개에서 적은 고개로 걸친 국도변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금호강에 남으로는 경부본선에 접하고 있다.[35] 1962년 3월 현재 임야가 800단보(240,000평), 농지면적이 208단보(62,400평; 논이 115단보, 밭이 93단보), 대지가 21,000평, 기타가 100단보(30,000평)로 대지 보다 임야와 농지가 훨씬 더 많았다. 농가 호수가 60세대(300명), 호당 경지 면적은 3단보(900평) 정도였다. 이를 보면 이 지역이 본시 농업지대였으며 현재도 농가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26).[36]

"이 지역이 약간 특이한 양상을 띠게 된 것은 하상부락민의 집단 이주 이후이고 이곳 주민들이나 이웃 주민들도 이 지구를 속칭 '새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새마을의 유래를 보면 1955년 7월경 시당국의 판자집 철거명령으로 철거를 당한 칠성동 하상부락의 철거민들이 처음에는 경북대학교 옆의 복현동에 이주하였다가 다시 경대의 항의에 부딪혀 시 직원과 그들이 물색한 땅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한다… 칠성동의 하상부락민이 일단 정주를 한 이래로 잇달아 대봉동, 수창동 등의 철거민들이 계속 이주해 옴으로써 세대 수가 무려 600여 세대에 달하여 급작스레 새로운 마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27)."[37]

---

34) 위의 책, pp. 13-14.

35) 조사대상 지역의 위치는 〈생활권〉 지도를 참고하라. 위의 책, p. 253.

36) 위의 책, p. 26.

37) 위의 책, p. 27. 신암동 5구 주민은 상당수가 신천과 대봉 등의 하상에 살고 있다가 경북대학교 부지내로 옮겨왔던 것을 경북대에서 다시 이들에게 신암동 5구의 부지를 매입하여 거주지로 마련하여 주었기 때문에 경대와는 인연이 있어 이 조사에 있어서는 그들의 호의적인 협조를 얻을

신암동 5구는 총 세대수가 1,027호이고 총인구가 5,464명이었으며 47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은 신암동 5구의 일부인 18반부터 25반까지(20반 제외)의 7개 반(1반은 평균 26세대), 124세대, 623명이었다. "이 7개 반을 선정한 것은 경대에서 부지를 마련해준 사람들이 집중하여 살고 있고 또 동회 측의 이야기가 이 7개 반이 비율로 봐서 구호세대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빈곤지역이라는 것이며 이 7개 반이 서로 인접해 있는 까닭에 그들의 집단적인 인간관계나 상호의존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소시오 그람〉이나 '사회적 거리'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38]

이 지역은 절대농가가 10세대(64명), 공공구호자가 54세대, 일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점이 있었다. 이것이 당시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던 신천동5구가 아니라 두 번째 빈곤한 지역이었던 신암동5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의 하나였다. 경북대 이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로는 경대와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원으로나 수시적인 조사에서의 편리성, 시당국의 희망 등이었다.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p. 14-15. 경북대 부지(복현 60고지)는 1951년 8월에 교사부지의 측량하기 시작했고, 토지소유자 318명으로부터 전폭적인 협조를 얻어 총 부지 349,696평의 사용승인 및 장차 학교 측에 매도할 계약을 맺었으며 이어 1952년 12월에 이르러 각계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상기 예정부지 중 약 17만평을 일단 매입하였다. 또 교사부지의 정리사업은 유가족들의 협조로 약 1천여위의 분묘를 이장한 후 미 제5공군 건설대가 맡아서 무상으로 작업을 해 주었다. 경북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경북대학교 60년사』, 2012, pp. 69-70. 1954년 봄에 사회학과 첫 입학생이 입학하였을 때 단과대학별(문리대, 사범대, 법정대, 농과대)로 판자로 된 가교사가 한 채씩 있을 뿐이었다. 대학본부, 도서관, 의예과도 별도의 판자막사가 있었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30년사 1982-2012』, 2012, p. 195. 교사 부지 내의 철거는 이후 교사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1965년 무렵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38) 위의 책, p. 15. 20반을 제외한 것은 그 반이 다른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집단 이주민이 아닌 농업종사를 주로 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책, pp. 15-16.

구호자가 258세대로 3할 이상이 구호대상이었다. 공공구호대상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자 등이고, 일반구호대상은 정부계획에 의하여 정착한 난민·귀농민 무의탁자, 나병환자, 공사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자 등이고, 실업구호대상은 1961년 1월에 실시한 실업자실태조사결과에 따라 1급, 2급해당자 등이었다. 정부는 세 종류의 구호세대를 분류하고, 이들을 문호에 다른 색깔의 카드를 붙여서 구분했는데, 공공구호자는 청책카드, 일반구호대상은 황색카드, 실업구호대상은 녹색카드였다. 이렇게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이겠지만, 당시 모두 가난하기 때문에 구호대상자라는 것이 그다지 낙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구호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주의 질병이 3가구, 모자세대가 7가구, 노령에 의한 노동불능이 4가구, 장해에 의한 노동불능이 5가구, 수입의 부족이 18가구, 기타 1가구로 전체 37가구였다. 구호세대는 정부기관, 시청 공공이 17가구, 일반 실업이 21가구, 실업이 15가구로 구호 세대가 124가구 중 53가구로 42.8%를 차지했다. 민간기관 중에는 기독교가 3가구, 천주교(파티마병원을 포함)가 4가구로 5.6%를 차지했다. 구호를 받지 않는 세대가 64가구로 51.6%를 차지했다. 종교시설에 의한 구호가 전체 구호기관의 10%를 넘었다.[39]

이들의 출생지를 보면 경북과 경남을 제외하면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8개 도와 만주와 일본까지 있었다. 경북이 65가구, 경남이 23가구, 서울이 2가구, 경기가 3가구, 충남이 4가구, 평북이 4가구, 평남이 3가구, 황해가 4가구였다. 전남북, 충북, 강원이 없는 대신에 평북, 평남, 황해의 월남민이 있었고, 해외에서 출생한 귀환민

39) 위의 책, p. 48.

이 있었다. 이북 시읍이 6가구, 이북 촌락이 5가구, 일본이 1가구, 만주가 2가구, 외국 시읍이 2가구, 외국 촌락 1가구였다. 전체 124가구 중 월남민이 11가구이고, 해외 귀환 동포가 3가구였다. 직전 거주지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면 그 수가 적었다. 대구가 57가구, 경북이 24가구(도시 1가구, 농촌 23가구), 타도가 18가구(도시가 10가구, 농촌이 8가구), 외국 도시가 1가구였다. 전체를 보면 도시가 69가구, 농촌이 31가구였다.[40] 이주해온 이유는 철거를 당해서가 47.6%(59가구), 그 외의 이유가 52.4%(65가구)였다.[41]

조사지역의 외형에 대해서는 전경과 일부 지역에 관한 사진, 일반주택, 천막집, 토막집, 판자집, 면접의 한 장면에 관한 사진, 조사지의 위치도와 조사대상지구의 세대번호를 표시한 주택배치도가 수록되어 있다.[42] 참고로 1986년 11월 당시의 남산4동 '6·25피난민촌'의 상황을 보자.[43] 남산4동은 원래 화장터를 옆에 낀 공동묘지와 밭으로 된 경사진 들판이었다. 주로 천막촌이었다가 점차 시멘트 블록 벽에 루핑이나 슬레이트 지붕을 이었다. 기와지붕이나 2층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4미터 폭의 길이 남북으로 나 있고, 남쪽은 교회, 북쪽은 불당을 경계로 한다. 0.7-1.5미터 골목길이 여기저기 있다. 주택 규모는 주로 6-8평이고 15평 정도의 큰

40) 까사그란데의 거주자는 멕시코의 32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모여 든 사람들이었다. 루이스, 앞의 책, 1997, p. 10. 동부이촌동 조사에서는 세대주의 출생지는 거의 모든 도에 걸쳐 있었다. 곧 함경도가 3.6%(36가구), 평안도가 5.4%(39가구), 황해도가 7.3%(53가구), 강원도가 3.3%(24가구), 경기도가 9.1%(66가구), 서울시가 10.0%(72가구), 충청도가 20.9%, 전라도가 25.4%(184가구), 경상도가 10.9%(79가구), 부산이 1.8%, 제주도가 0.3%(2가구)였다. 노창섭, 앞의 책, 1965, 21쪽. 이것은 서울의 인구집중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전라도와 충청도, 특히 전라도가 가장 많고, 월남민이 16.3%에 달한 것이 주목된다.

41)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p. 58-60.

42)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25, p. 28.

43) 박경구는 남산 4동에 대한 504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와 39가구에 대한 비형식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박경구, 앞의 논문, 1986, p. 77.

집이 약간 있다. 방을 세 놓기 위해 주택의 크기에 비해 방수가 많으며 외벽 면을 제외하고는 판자로 칸막이가 처져 있어, 창문이 없는 방이 많고, 있다고 해도 채광이 잘 되지 않아,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한다. 대부분의 집은 담장이 없고 문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방문이다. 대개 부엌과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방 앞에는 요강이 있다. 1미터 정도의 좁은 골목 길은 지난 선거에 보도블록을 깔았으나 낡고 경사진 곳이 많아 비나 눈이 올 때는 두 손으로 길 양쪽의 벽에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을 정도이다.[44]

1969년 7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신암동지역(신암동의 제1구역)은 60가구당 공중화장실이 4개, 22가구당 단 1개의 식수용 공동우물이 있었다. 식수, 쓰레기 처리, 소방시설, 도로 등의 환경적 측면은 매우 미개해 보였다. 전체적으로 정부서비스로부터 방임된 것처럼 보였다.[45] 1967년에 불량지구 개량방법의 하나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1970년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신암5구동 606가구, 360동은 신암아파트 8동(466가구분)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사업비는 14,000천원으로, 철거민 대책은 입주금 면제, 아파트 입주와 단독주택 입주 지원으로 1가구당 10만원을 융자해 주기로 하였다. 신암아파트는 1971년 11월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당초 입주자가

---

44) 이곳은 원래는 대명4동 2633번지였으나 1965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재선 선거공약 중의 하나로 개인에게 불하해 준다고 하여 1966년 12월에 첫 불하를 하고, 행정구역을 남산4동 2482번지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약 100세대는 '공원조성부지' 명목으로 불하를 받지 못하였다. 1990년 2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고, 재개발 사업이 실시되자 미불하 주민 34세대가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대구시에서 최초의 철거반대투쟁을 전개하여 그해 12월에 보상에 합의하였다. 철거반대투쟁에는 미불하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남산4지구에 있던 민중교회인 이웃교회의 '우리동네신문' 편집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동네신문'은 4월 1일 1호를 발행하여 8월 1일 10호까지 발행한 후 폐간하고, 미불하주민대책위원회가 '우리동네소식'을 창간하였다. 안경욱, 「주거권쟁취를 위한 철거투쟁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2013(미간행), pp. 20-22.

45) 이만갑 · 허버트 R. 베린저, 앞의 책, 2012, p. 531.

259가구, 전매자가 126가구로 전매율이 48.6%에 달하였다. 전매자 주거 실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20가구, 아파트가 17가구, 전세가 47가구, 월세가 38가구, 기타가 4가구에 달하였다.[46]

1973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의 무허가판자촌(30동 이상 집단)이 19개 지구가 있었다. 판자집은 2,306동이었다. 대구시 총수는 11,850동으로 전체 주택의 10.6%에 달하였다. 이들의 형성 과정을 보면 도시유입 인구의 집결지가 6개 지구,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의 정착지(6·25촌 또는 피난민촌)와 시내에 산재한 무허가 판자집 철거민들의 재정착지가 각각 5개 지구, 한국전쟁 이전부터 관리가 소홀한 하천부지와 사유지에 무단점거한 것(해방촌)이 3개 지구가 있었다. 토지 소유 형태를 보면 국공유지는 7개 지구(621동), 타인소유(558동)와 국공유지 및 사유지(1,127동)가 각각 6개 지구, 하천이 3개 지구(220동), 도로가 2개 지구(241동), 공원(35동)과 임야(125동)가 각각 1개 지구였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판자, 루핑, 천막 등이 대부분이고 1동당 면적은 4평 미만이 34%, 9평 미만이 32%이고, 1동당 평균 2.2가구가 거주하였다.[47]

이제 '산체스네 아이들'의 무대인 멕시코시티의 두 베씬다드 지역에 관해서 살펴보자. 대구시의 빈민지역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거주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베씬다드 내[까사그란데, 필자]에는 콘크리이트로 포장된 마당 네 개가 길게 뻗어 있는데 그 폭은 열다섯 자(4.5미터) 가량 된다. 이 마당들을 향해 창문도 없는 157개의 방 한 칸짜리 연립주택의 사립문들이 열두 자(3.6미터) 간격으로 나있다. 낮에는 집집마다 문 옆으로 조잡한 사다리를 나지막

46) 이규이, 「도시무허가 판자촌 대책: 대구시를 중심으로」, 『도시문제』 제8권 8호, 1973, pp. 50-51. 1969년과 1970년에 각각 입주가 시작된 동인아파트(동인3가동, 239동, 379가구)와 신천아파트(신천1구동, 108동, 499가구)은 전매율이 각각 69.9%와 60.5%에 달하였다. 이를 보면 신암5구동이 상대적으로 전매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47) 위의 논문, pp. 46-47.

하고 납작한 지붕에 걸쳐놓는데 그 밑이 부엌이다. 지붕은 쓸모가 많아서 빨래도 널고 닭장, 비둘기장, 꽃병, 약초, 가스통도 여기에 늘어놓는다. 때로는 텔레비전안테나도 볼 수 있다. 낮에는 안마당이 사람과 개, 칠면조, 닭, 돼지 등 가축들로 붐빈다. 안마당이 행길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논다. 부인네들은 물을 긷기 위해 줄을 서 있거나 빨래를 널면서 서로 소리쳐 부르고 행상들은 물건을 팔러 다닌다. … 일요일 밤이면 이곳에서는 야외 댄서가 벌어진다."[48] "빠나데로스는 한 줄로 된 열두 호의 창문도 없는 단칸방 연립주택으로서 행인들의 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집들을 둘러싼 담장도 없고 문도 없다. 먼지 나는 마당 하나가 있을 뿐이다."[49]

4. 극심한 가난,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

주택 상황을 보면 천막이 1호(3평 미만, 중간 정도 파손), 토막이 51호(48.5%), 판자집이 26호(24.7%), 난민주택이 1호(5평 미만, 중간 정도 파손), 일반주택이 26호였다. 토막집은 부엌이 따로 없

48) 루이스, 앞의 책, 1997, p. 10.

49) 위의 책, p. 12. 빠나데로서는 아이들의 이모가 거주하는 베씬다드로 까사그란데보다 더 열악한 곳이었다.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헤수스의 첫 아내인 레노레는 그들이 까사그란데로 들어오기 불과 몇해 앞서 죽었다. 레노레의 언니 과달루뻬는 예순 살의 노파로서 몇 구역 떨어진 빵가게 거리에 있는 빠나데로서라는 좀더 작은 베씬다드에 살고 있었다. 이모 과달루뻬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아이들은 자주 이모네 집에 드나들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집을 피난처로 삼았다....까사그란데나 빠나데로스나 모두 떼삐또 구에 속한다. 떼삐또 구는 가난한 구역으로서 조그만 공장, 창고, 공중 목욕탕, 삼류 영화관,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 주막, 뿔께리아(토산술인 뿔께를 파는 선술집) 그리고 구멍가게들 천지이다." 루이스, 앞의 책, 1997, p. 8.

는 집이고, 판자집은 부엌이 있지만 마루가 없는 집이었다. 천막과 토막과 같은 부엌이 따로 없는 주택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토막집은 3평 미만이 37호, 5평 미만이 7호, 8평 미만이 7호였고, 판자집은 3평 미만이 19호, 5평 미만이 3호, 8평 미만이 3호, 일반주택은 3평 미만이 10호, 5평 미만이 10호, 8평 미만이 5호였다. 11평 이상은 판자집이 1호, 일반주택이 1호가 있었다. 다시 주택상황을 크게 파손, 중간 정도 파손, 약간 파손, 완전으로 구분하면 크게 파손은 일반주택 2호가 있었고, 완전은 토막 6호, 판자집 3호, 일반주택 6호가 있었다. 전 주택 수의 반 이상이 방이 하나였다. 방수는 1개가 51.4%, 2개가 40.0%, 3개가 6.6%였다.[50]

주거의 시설 설비를 보면, 식수는 자가 우물이 1.6%, 공동우물이 74.2%, 공동수도가 24.2%였다. 공동수도는 한 초롱 당 10환이었다. 배수설비는 있다가 8.1%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경사져 있는 언덕 중턱에 있거나 비교적 양지 바른 평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상당히 넓은 하수구가 있어서, 배수설비가 없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시설은 있다가 1.6%에 불과하였다. 전등이 있는 세대는 2세대에 불과했다. 일광은 양호가 58.1%, 불량이 37.9%, 극히 불량('까막방')이 4.0%였다. 통풍은 양호가 54.8%, 불량이 39.5%, 극히 불량이 5.6%였다. 취사장은 있다가 86.3%(대개 가설정도), 변소는 있다가 25.0%였다.

주택소유 상황을 보면 자가가 75.8%, 세집이 8.8%, 셋방이 15.3%였다. 자가 중 1방 전부 사용이 53%, 2방 전부 사용이 24%, 전부 사용이 3%였고, 전부 사용이 64.5%였다. 1방 일부 사용이 11%, 2

50)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p. 29-31. "그 파손도는 이 지구 일대가 이주한 지 10년이 못되는 까닭에 그다지 심하지는 않지만 그 가옥규모가 원시적이라고 할까 거의 가옥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옥의 형태는 사진과 〈토막·판자·일반주택의 약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같은 책, pp. 29-30.

방 일부사용이 3%였고, 일부 사용이 11.3%였다. 차가 중 1방 전부 사용이 7%, 2방 전부 사용이 3%였고, 전부 사용이 8.1%였고, 3방 일부 사용이 1%였다. 셋방 중 1방이 18%, 2방이 1%였다. 평당 거주자의 비율은 5인 이상이 9.6%, 3인 이상이 46%, 2인 이하가 54%였다.[51]

가구 소유 상황을 보자. 침구를 가진 가구가 123가구, 밥상을 가진 가구가 107가구, 다리미를 가진 가구가 49가구, 다듬돌을 가진 가구가 9가구, 책상을 가진 가구가 29가구, 찬장을 가진 가구가 23가구, 경대를 가진 가구가 27가구, 시계를 가진 가구가 15가구, 장롱을 가진 가구가 25가구, 재봉틀을 가진 가구는 없었고, 엠푸를 가진 가구가 1가구, 축음기를 가진 가구는 없었고, 라디오를 가진 가구가 1가구, 자전거를 가진 가구가 4가구, 사진기와 전축을 가진 가구는 없었고, 신문이 있는 가구가 9가구, 잡지가 있는 가구가 3가구, 소설이 있는 가구가 2가구, 교양서적이 있는 가구가 3가구, 전문서적이 있는 가구는 없었다.[52]

식사 상황을 보면 하루에 쌀밥을 2회 먹는 가구가 2가구, 쌀밥을 3회 먹는 가구가 8가구, 잡곡밥을 2회 먹는 가구가 16가구, 잡곡밥을 3회 먹는 가구가 25가구, 국수를 2회 먹는 가구가 27가구, 국수를 3회 먹는 가구가 9가구, 죽을 2회 먹는 가구가 19가구, 죽을 3회 먹는 가구가 9가구, 아침은 밥을 먹고 저녁은 죽으로 2회 먹는 가구가 9가구(12.4%)이고, 하루에 2회 먹는 가구가 73가구,[53] 3회 먹는 가구가 51가구였다.[54] 쌀밥을 먹는 가구가 10가구

---

51) 위의 책, pp. 31-33.

52) 위의 책, p. 46.

53) 2회 먹는 가구 중에는 국수를 먹는 가구가 37.0%, 죽을 먹는 가구가 26.0%, 잡곡밥을 먹는 가구가 21.9%였다.

54) 3회 먹는 가구 중에서는 잡곡밥을 먹는 가구가 49.0%, 국수를 먹는 가구가 29.0%, 쌀밥을 먹는 가구가 15.8%였다.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47.

(8.1%), 잡곡밥을 먹는 가구가 41가구(33.0%), 국수를 먹는 가구가 36가구(29.0%), 죽을 먹는 가구가 28가구(22.6%)였다.[55]

건강 상황을 보면 불구질병 중 소아마비가 남자 1명, 여자 2명, 벙어리가 남자 2명, 여자 2명, 귀머거리가 남자 1명, 여자 2명, 장님이 남자 2명, 여자 1명, 성불구자가 남자 1명, 척추타박이 남자 2명, 기관지 절개가 남자 1명, 수족불구가 남자 10명, 여자 1명, 중풍이 남자 1명이었다. 그리고 장기중병자 중 폐결핵이 남자 3명, 여자 2명, 산후병이 여자 1명, 심장병이 남자 1명, 여자 1명, 위장병이 남자 3명, 여자 2명, 신경통이 남자 1명, 여자 1명, 천식이 여자 1명이었다(44).[56] 곧 불구질병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빈민들이 위생 상태, 영양 상태가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57]

---

55) 당시는 하루 두 끼 먹는 것이 예사였다. 1954년과 1955년에 각각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두 사람의 회고에서도 당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교실이 있으면 밥을 싸와도 되는데, 물론 들판에 앉아서 먹어도 되지만 그땐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밥 싸와도 먹을 장소가 없으니까 도시락 싸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신암동에 살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기도 하고, 밥 안 먹기도 하고, 또 특별히 식당에서 학생이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저 멀리 떨어져서 식당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허허벌판 속에 판자 집만 있는 형편이었고, 일체 민가나 이런 게 없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밥을 먹을 곳이 없었어요. 돈이 없고 못 먹는 경우도 많았고요. 가끔 도시락을 싸와서 나무 밑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밥 못 먹는 사람 때문에 여럿이 앉아서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대충대충 살았는데 나도 밥을 싸온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저녁이나 먹으면 된다 생각하며 넘어갔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5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 2004, p. 44, p. 47.

56)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44.

57) 도시 빈민이 유병율이 높았던 점은 1964년 동부이촌동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중환자 있음이 21.3%(154세대)였다. 병의 종류를 보면 폐병이 16.3%, 늑막염이 15.1%, 정신이상이 8.1%(7세대), 소아마비가 3.5%(3세대), 실명이 3.5%, 중풍이 2.3%였다. 의료기관 이용 상황을 보면 보건소가 2.9%(9

세대 수입의 고하는 주로 세대원의 취업자 수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실업자가 생산연령인구의 3분의 1에 달하였다. 구직자를 보면 14-19세가 남자 15명, 여자 19명, 20-29세가 남자 15명, 여자 15명, 30-39세가 남자 7명, 여자 11명, 40-49세가 남자 11명, 여자 10명, 50-59세가 남자 4명, 여자 2명으로, 전체 구직자는 남자 197명 중 52명, 여자 170명 중 47명에 달하였다.[58] 엥겔지수는 77.9퍼센트였다. 이것은 1962년도의 전도시와 대구시의 엥겔지수인 44.4퍼센트와 50.6퍼센트와 비교하면 이 지역의 빈곤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59]

멕시코시티의 빈민 상황을 보자. "헤수스 산체스는 하루 12.5페소(1달러)를 받고 글로리아 식당에서 재료구입 담당자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이 베씬다드 내에서는 중간 소득층에 속한다. (....) 4백만 멕시코시티 주민들 가운데 150만이 산체스네 가족과 비슷하거나 좀더 가난한 처지에 있다."[60]

산체스가 사는 까사그란데보다 더 상황이 나빴던 빠나데로서의 빈민 실태를 살펴보자. 빠나데로스는 까사그란데와는 달리 집안에

세대), 병원이 66.4%, 기타가 0.3%이고, 환자 운반 방법을 보면 차륜이 36.9%, 지게가 0.3%, 리어카가 5.7%, 업고 감이 43.5%, 걸어서가 6.0%, 기타가 2.4%였다. 노창섭, 앞의 책, 1965, p. 75, p. 79, p. 84.

58)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37.

59) 한국은행, 『경제통계년보(1962년)』, 1963;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132.

60) 루이스, 앞의 책, 1997, p. 14, p. 26. 까사그란데 주민의 1인당 월수입은 23페소에서 5백 페소(당시 환율로 3달러 내지 40달러)였다. 1인당 월수입 2백 페소(16달러) 미만이 68%, 2백 내지 3백 페소(24달러)가 22%, 3백 내지 5백 페소가 10%였다. 빠나데로스의 경우는 월수입 2백페소 미만이 85%, 2백 페소 이상은 하나도 없었으며 1백 페소 미만이 41%였다. 방 한 칸짜리 까사그란데의 연립주택 월세는 30 내지 50페소(2.4 내지 4달러)며 빠나데로스의 경우는 15 내지 30페소(1.2 내지 2.4달러)다. 부부와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족이 하루 식비로 8내지 10페소(64 내지 80센트)를 지출한다. 같은 책, p. 13.

변소도 없으며 수도도 없다. 그래서 공동 빨래터 두 개와 닳아빠진 벽돌과 낡은 거적때기로 가린 허술한 변소 두 개를 여든여섯 명의 주민이 사용한다. 어떤 사람이 빠나데로스에서 까사그란데로 옮겨갔다고 하면 그것은 가족 당 침대 수가 늘고, 마룻바닥에서 자는 사람의 수가 줄고, 석유나 숯불 대신 가스로 요리할 확률이 높고,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을 가능성이 높고, 식사 때면 포크, 스푼 등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며, 용성란으로 빚은 싸구려 술 뿔게 대신에 맥주를 마시고, 중고 가구나 의류 대신에 새 옷을 사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또한 흙벽돌에서 시멘트로 질그릇에서 알루미늄 그릇으로, 약초에서 항생제로, 돌팔이로부터 의사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1956년 현재 까사그란데 주민 가운데 79%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으며, 55%가 가스풍로를, 54%가 손목시계를, 49%가 나이프와 포크를, 46%가 재봉틀을, 41%가 알루미늄 냄비를, 22%가 전기 믹서를, 21%가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다. 빠나데로스에서는 이런 사치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단 한 집뿐이었으며, 손목시계를 찬 사람도 둘뿐이었다.[61]

빠나데로스와 신암5구는 빈곤 상황은 비슷하였다고 해도 의식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루이스가 말하는 '빈곤문화'의 유무였다. 루이스는 멕시코시티의 빈민지역에서 발견되는 '빈곤 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가난이란 어떤 적극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서 빈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이자, 근거이자, 방어기제이다. (중략) 멕시코시티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문자해독 수준이 매우 낮고, 노조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고, 의료혜택이나 '세구

61) 위의 책, pp. 12-13.

로 소시알'이라는 국가복지기관의 오랜 은전도 입지 못하며, 은행이나 병원, 백화점, 박물관, 화랑이나 공항을 이용할 기회도 거의 없다. 이들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제시해 보자면 주거공간의 부족, 사생활 보장의 불가능, 군거, 흔한 알코올 중독, 잦은 폭력사태, 어린이들에 대한 흔한 매질, 마누라 구타, 이른 성경험, 자유결합과 합의결혼, 비교적 빈번한 처자 유기, 모계 중심의 경향 및 모계 친척에 대한 친숙, 핵가족의 우세, 권위주의적 경향, 달성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족단합에 대한 강조, 또한 만족이나 계획을 뒤로 미룰 능력이 비교적 없는 찰나주의와 어려운 생활 형편이라는 현실 때문에 체념과 숙명론에 빠지기 쉽다는 것도 그러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성 우월 정신이 강하여 '마끼스모', 즉 사나이다운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자는 순교자적 희생정신을 갖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정신 병리를 참고 견딘다. (중략) 가난이란 하위문화의 특성가운데는 기존 제도나 기관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지역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많다. … 지배계급의 가치와 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경찰을 증오하며, 정부나 고관들을 불신하고, 교회까지도 냉소하기 때문에 가난의 문화는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정치운동에 이용될 저항적인 성격과 잠재력을 가진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뿌리가 복잡다양한 신앙과 관습을 이용하여 유용한 생활양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므로 가난의 하위문화는 일종의 잔여라는 성격을 지닌다.[62]

한국의 슬럼가 빈민의 의식조사에서 루이스가 말하는 '빈곤 문화'가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가 많았다. 신암5구 주민들의 사례에서도 '빈곤문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63] 조사대

62) 위의 책, p. 23, pp. 25-26.

63) 1994년에 실시된 빈민조사에서도 전입 당시와 현재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면 향상되어왔고 앞으로도 향상될 것임이 22%, 앞으로는 조금 개선되거나 현상유지와 현상 유지가 각각 11.6%이고, 악화되었고 앞으로도 악화될 것임이 4.1%로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임이 33.6%를 차지하였다. 이를 보면 조사 대상 빈민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성취 동기를 가진 생산적 노동계층으로의 적응가능성을 가진 건전한 시민인 가난한 사람(respectable poor)이었다." 이철우, 「도시빈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적·계층적 이동」, 대구

상지역 주민들의 대부분(87.3%)이 자녀대의 생활전망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적극적 비난(41.9%), 소극적(36.3%) 비난, 소극적 시인(17.7%), 적극적 시인(1.6%)으로, 비난(78.2%)이 시인보다 훨씬 더 많았다.[64] 그러나 물론 조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자살에 대한 소극적 또는 적극적 시인의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의 빈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65]

이러한 결과는 1940년 4월부터 7월까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4학년 20명이 서울의 토막민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와는 대조적인 결과였다.[66] 위 조사에서는 장래의 희망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103가구 중 현재 직업의 발전이 17가구, 장사가 7가구, 기타 전업이 3가구, 만주 이주가 1가구, 귀농이 4가구, 자녀의 교육이 8가구, 어린이에게 기술 습득이 7가구, 어린이가 성장하여 가계를 돕기를 바람이 11가구, 특별히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37가구, 미상이 8가구였다. 이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자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바라는 희망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정도의 자가 많고 그들의 장래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라고 평가하였다.[67]

사회연구소, 『대구지역 빈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 연구』, 1994, p. 39.

64) 당시에 실시된 사회조사에서는 사회적 태도와 의식구조의 분석, 가치관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영세민실태조사보고서』의 의식조사 편도 이에 해당된다. 배용광, 앞의 논문, 1965, p. 448.

65) 루이스, 앞의 책, 1997, pp. 272-273.

66)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앞의 책, 2010, p. 12.

67) 위의 책, p. 216. "소극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으로 현상을 타파하거나 보다 나은 생활로 비약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성은 반복되는 좌절과 장기간의 빈곤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잠자는 체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그들의 타고난 운명과 힘이 센 자에 대한 안타까울 정도의 모순에 의한 것인지 주요 원인을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물법자(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체념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답답한 성향의 사람을 가리킨다)적 체관 아래 비참한 극빈생활에 빠져 적극적

1984년 6월에 실시된 대구시 빈민밀집지역에 관한 조사(20개 지역 가운데 비교적 빈민이 많이 거주하는 16개 지역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빈곤지역이 그 지역이 형성될 때의 주민들은 거의가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갔고(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상승이동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함) 현재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 이후에 교체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말처럼 이 지역이 빈곤가족들이 거쳐 가는 정박지라고 할지라도 대구의 경우는 비교적 그 거주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겠다. 도시 생태학적인 현상으로서의 침입(invasion)과 계승(sucession) 간의 간격이 완만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68]

침입과 계승이 완만하다는 것은 주민의 거주연한이 상대적으로 길었음을 말하는데, 1년 미만이 14.6%, 1-5년이 30.8%, 6-10년이 20.5%, 11-15년이 11.2%, 15년 이상이 22.9%였다. 이를 보면 신암5구 상황은 철거에 의해서 이주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임대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이동이 예외적으로 빨랐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멕시코시티의 사례와 비교해서 대구시의 빈민지역의 변화가 더 빨랐음은 분명하다. 1993년의 후속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거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9년 전 빈곤지역으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69]

의지를 잃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구제책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실이다… 이러한 참혹한 생활을 누리는 그들 토막민은 조금도 적극적 희망을 가지지 않고 극빈생활에 빠져 오직 하루하루 생활에 급급하다… 관할 관청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장래는 극히 우려스러운 상태이다." 같은 책, p. 217, pp. 219-220.

68) 박경구, 앞의 논문, 1985, p. 46. 조사 지역인 16개 빈민지역 중에는 신암 4동의 '새마을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칠성신천천변 철거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되었고 지형이 고지대였다. 이 지역에는 283가구, 1,32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같은 논문, p. 40.

69) 위의 논문, p. 115.

한국의 빈민지역이 멕시코와 비교해서 더 많은 변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국이 멕시코보다 더 많은 탈빈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 한국과 멕시코가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극심한 빈곤율을 보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빈곤지역의 변동과 빈곤율의 변동의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조사에서는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 곧 빈곤의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에서 그 답을 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2차적 빈곤'을 해명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5. 지역공동체 없는 가족 공동체

학력을 보면 초등 재학이 50명, 초등 퇴학이 19명, 초등 졸업이 73명, 중학교 재학이 6명, 중학교 퇴학이 6명, 중학교 졸업이 13명, 고등학교 재학이 2명, 고등학교 퇴학이 3명, 고등학교 졸업이 8명, 대학교 재학이 2명, 대학교 퇴학이 1명, 대학교 졸업이 3명, 무학이 남자 63명(18.4%), 여자 63명(32.9%), 불취학(12세 이하)이 남자 92명, 여자 87명이었다.[70] 초등학교 취학률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71]

세대주, 배우자(처), 자녀의 교육 정도를 살펴보자. 세대주의 교육 정도는 무학이 남자가 53명(13명, 괄호 안은 여자), 초등학교

70) 학령 아동 중 불취학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는 조사에서 취학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음을 뜻한다.

71) 동부이촌동의 상황을 보자. 적령아의 취학학교 종류를 보면 초등학교가 94.8%(307세대), 공민학교가 4.0%(13세대)였다(실 수는 324명, 118). 극빈층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93.9%, 공민학교가 4.1%(4세대)였다(실 수는 98명). 노창섭, 앞의 책, 1965, p. 163.

중퇴가 9명(1명), 초등학교 졸업이 27명(2명), 중학교 중퇴가 2명, 졸업이 8명, 고등학교 중퇴가 3명, 졸업이 4명, 대학교 졸업이 2명이었다. 무학자 중 한글 해독자는 18명(4명), 한문해독자는 9명(1명)이었고, 문맹이 26명(8명)이었다.[72]

배우자(처)의 교육정도를 보면 무학이 67명(69.1%), 초등학교 중퇴가 4명, 졸업이 23명, 중학교 졸업이 1명, 고등학교 졸업이 2명이었다. 자녀의 교육정도를 보면 무학이 17명(19명, 괄호 안은 여자, 합쳐서 15.5퍼센트), 초등학교 재학이 52명(38명), 중퇴가 64명(12명), 졸업이 29명(18명), 중학교 재학이 5명(1명), 중퇴가 7명(2명), 졸업이 6명, 고등학교 재학이 1명(1명), 중퇴가 여자 1명, 졸업이 5명(1명), 대학교 중퇴가 1명, 졸업이 1명이었다. 자녀를 취학시키고 싶은 지 여부를 보면 취학시키고 싶음이 98.3%, 취학시키고 싶지 않음이 0.4(3세대), 무응답이 21.3%였다. 이 자료에는 초등학교 적령아 경우에 공민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전체 13세대, 극빈층 4세대가 있었다.[73]

한글 해독, 곧 문해율을 보면 10대는 남자 82%(76명), 여자 66%(51명), 20대는 남자 47%(40명), 여자 36%(25명), 30대는 남자 24%(21명), 여자 36%(22명), 40대는 남자 45%(37명), 여자 39%(18명), 50대는 남자 31%(21명), 여자 16%(5명), 60대는 남자 9%(6명), 여자 8%(1명)였다. 60대에 비해서 50대가, 50대에 비해서 40대가, 20대에 비하여 10대가 문해율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문해율이 높은 편인데,[74] 이는 멕시코시티의 빈민

72)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74.

73) 위의 책, p. 84, p. 90, p. 118.

74) 한자 해독은 10대는 남자 9명, 여자 5명, 20대는 남자 23명, 여자 5명, 30대는 남자 18명, 여자 6명, 40대는 남자 20명, 여자 4명, 50대는 남자 14명, 여자 1명, 60대는 남자 2명이었다. 일어 해독은 20대가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고, 30대가 남자 12명, 여자 5명, 40대가 남자 15명, 여자 6명, 50대가 남자 10명, 여자 1명, 60대가 남자 2명이었다. 영어 해독이

들과 비교가 된다. 두 베씬다드의 문해율(원문은 문맹률)은 까사그란데가 8%, 빠나데로스가 40%에 달하였다(13). 이와 같이 빈곤층 중에서 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다시 말하면 빈곤 유무가 문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빈곤층의 탈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산업별 인구를 보자. 농업이 자작이 남 3명, 여 1명, 머슴이 남 1명, 품팔이가 남 5명이었다. 상업이 점포가 남 3명, 여 3명, 행상이 남 19명, 여 8명, 중매가 남 2명이었다. 공업이 방직공이 남 1명, 여 10명, 식료공(간장)이 남 1명, 토공이 2명, 목공이 5명, 화공이 4명, 연필공이 여 1명, 압핀공이 남 1명, 빳지공이 1명, 기계공이 남 8명, 여 1명, 화학공이 남 4명, 여 3명, 양철공이 1명, 백철공이 3명, 자전거가 1명이었다. 자유공무는 공무원이 여 1명, 회사원이 1명, 군속이 1명이었다. 서비스는 사설대서가 1명, 이발이 2명, 접객이 남자 1명, 여자 1명, 식모가 4명, 구두닦이가 2명이었다. 단순노동은 짐수레가 6명, 지게품이 12명이었다. 부정(不定)노동이 남자 18명, 여자 7명이었다. 기타가 내직(가내부업) 종사가 남자 4명, 여자 10명, 넝마주이가 남자 2명, 여자 3명, 걸인이 남자 4명, 여자 7명이었다.

무업이 군인이 8명, 학생이 남자 10명, 여자 6명, 연금 수입이 1 명, 정유업이 1명이었다. 불구자가 여자 1명, 병자가 3명이었다. 유소자가 학생이 남자 54명, 여자 36명이었다. 13세 이하 남자 90명, 여자 74명이었다. 무직이 남자 51명, 여자 111명이었다. 불명이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다. 계 남자 341명, 여자 291명이었다.

10대가 2명, 20대가 남자 8명, 여자 2명,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다. 중국어 해독은 30대가 2명, 40대가 남자 5명, 여자 1명, 50대가 4명이었다.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41. 동부이촌동은 신문구독율이 14.9%를 차지하였다. 노창섭, 앞의 책, 1965, p. 108.

유업자 중 사무가 1.6%, 판매가 26.9%, 숙련이 5.9%, 반숙련이 19.3%, 비숙련이 44.7%였다.[75] 기술에서 방직은 10대가 자 1명, 여자 4명, 20대가 남자 3명, 여자 3명, 30대가 여자 1명, 50대가 1명이었고, 양재양복이 20대가 남자 1명, 여자 1명, 40대가 1명, 철공이 10대가 9명,[76] 20대가 5명, 30대가 3명, 40대가 4명이었다.[77] 동부이촌동 빈민의 수입 출처를 보면 노동이 45.9% (332가구), 장사가 18.5%(134가구), 사무원이 4.8%(35가구), 운전이 1.8%(13가구), 집세가 1.1%(8가구), 가정교사가 0.8% (6가구),[78] 공무원이

---

75)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p. 36-38.

76) 전태일이 청옥고등공민학교에 다닐 때 반장이 철공소에 다니다가 중퇴하는 바람에 전태일이 담임선생님인 손선생님에 의해서 반장(실장)이 되었다. "우리반 실장은 낮에는 철공소에 다니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모범생이었다. … 우리반 실장이던 박천수가 학교에 못 다니게 되자, 담임선생님인 손선생님께서 나에게 실장의 임무를 주셨다." 이를 보면 이 시기에 10대 남자가 철공소에 다니는 마찌꼬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영래, 『전태일평전』, 돌베개, 2005(개정판 17쇄, 1983, 초판 1쇄), p. 53.

77)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43.

78) 대구 빈민지역에 가정교사가 거주하던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1966년 2학기부터 1년 반 동안 청옥고등공민학교에 교사로 근무한 임재춘의 '김선생 이야기'이다. "김선생은 경북대 사범대학 수학과에 재학하면서 내가 찾아가곤 했던 친구집에 입주해 있던 가정교사였는데, 나에게 공민학교를 소개해 주었다. 한번은 공민학교 학생 중에 한명이 입대를 하게 되어 송별회를 한다는 것이 밤새도록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김 선생과 내가 돈을 구하려고 아침에 술집을 나섰지만 갈만한 곳이 없었다. 김 선생이 자기 집에 가보자고 했다. 김 선생은 입주해 있던 집에만 있었기에 최근에는 집에 들러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이서 찾아간 동네는 완전한 달동네였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판자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적으로 만든 집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반색을 하고 나오시는데 몹시 나이가 들어보였다. 김 선생은 앉기가 바쁘게 돈 이야기를 하였고 얼마간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김 선생은 자신의 초라한 집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지만 내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 돈을 구하기기 싶지 않으리라는 배려에서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나를 데려간 것이었다. 김 선생이 후배에게 보여준 사랑은 아직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임재춘, 「문리를 트는 공부」, 1997. www.tec-writing.com(검색일:

0.6%(5가구), 배달이 0.6%(4가구), 식모가 0.1%(1가구)였다.[79]

직업 상태를 세대주, 배우자(처), 자녀(남녀)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세대주의 직업을 보면 농업이 8명, 상업이 26명, 공업이 13명, 서비스가 2명, 단순노동이 28명, 기타가 10명이었다. 실업자의 전직을 보면 농업이 7명, 상업이 7명, 공업이 3명, 광업이 1명, 자유공무가 2명, 무직이 4명이었고, 판매가 27명, 숙련이 8명, 반숙련이 6명, 비숙련이 56명이었다. 전문, 관리, 사무 직종은 없었다. 상근(직공, 사무원, 관리, 이발, 접객, 식모, 노점)이 9명, 자영(점포, 노점, 행상, 대서, 중매알선인, 자작)이 29명, 일용(목공, 토공, 짐수레, 지게, 부정노동, 농업품팔이)이 49명, 내직(성냥붙이기 등)이 1명, 기타(구두닦이, 넝마주이, 걸인)가 9명이었다.[80]

배우자(처)의 직업은 유업자가 23명, 무업자가 74명이고, 직업은 상업이 9명, 자유공무가 1명, 단순노동이 2명, 기타가 10명이었다. 세목을 보면 공무원 1명, 점포 2명, 노점 1명, 행상 6명, 단순노동 2명, 내직(가정부업)이 5명, 식모가 1명, 걸인이 3명, 넝마주이가 2명이었고, 사무 1명, 판매 10명, 비숙련 12명이었다.[81]

자녀의 직업을 보면 상업이 4명, 공업이 33명, 자유공무가 2명, 서비스가 6명, 단순노동이 1명, 기타가 10명, 무업이 79명이었고, 사무가 2명, 판매가 10명, 숙련이 2명, 반숙련이 31명, 비숙련이 11명이었다. 세목을 보면 남자는 사무원 3명, 직공 17명, 구두공 2명, 이발업 1명, 행상 3명, 단순노동 1명, 내직 1명, 구두닦이 5명, 넝마주이 1명, 여자는 직공 13명, 행상 1명, 내직 6명, 식모 2명이었다.[82] 자녀는 부모보다는 반숙련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

2012.1.31.).

79) 노창섭, 앞의 책, 1965, pp. 63-64.

80)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p. 76-77.

81) 위의 책, pp. 85-86.

82) 위의 책, pp. 93-94.

다. 그러나 수입은 부모세대 이상으로 저수입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83] 이것은 자녀세대가 탈빈곤에 이르기가 쉽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신앙상태를 보면 종교 없음이 80.6%(510명), 기독교가 10.8%(68명), 불교가 8.4%(53명) 등이었다. 미신으로는 토정비결이 50가구, 궁합이 29가구, 푸닥거리가 13가구, 점이 20가구, 양밥이 6가구, 사주관상이 5가구였다.[84]

공동체성(원문은 커뮤니티성)을 직장권, 구매권, 통학권, 의료권, 유흥권, 통혼권,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권은 대구시 전역이 16가구, 칠성동이 20가구, 신암5구가 14가구, 동촌이 9가구, 역전이 5가구, 교동시장이 3가구였다.[85] 칠성시장이 있는 칠성동과 신암 5구가 가장 많았다. 구매권은 식량은 신암5구 80가구, 칠성시장 33가구, 신암시장 2가구이고, 부식은 신암5구 77가구, 칠성시장 17가구, 행상 4가구, 신암시장 2가구이고, 의복은 칠성시장 95가구, 행상 14가구, 교동시장 4가구, 서문시장 3가구이고, 사치품은 칠성시장 38가구, 행상 10가구, 신암시장 4가구, 교동시장 4가구, 서문시장 3가구였다.[86] 의료권은 파티마병원 73가구,[87] 보성병원(지역 입구) 9가구, 대학병원 5가구, 적십자병

---

83) 위의 책, p. 129.

84)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49. 동부이촌동의 자료와 비교해 보자. 세대주 및 부인의 종교를 보면 종교 없음이 67.2%, 62.9%, 신교가 16.5%, 19.4%, 불교가 9.5%, 8.9%, 구교가 4.6%, 4.4%, 유교가 0.4%(3명), 0.5%, 기타가 0.6%, 0.9%였다. 노창섭, 앞의 책, 1965, pp. 3-4. 동부이촌동과 비교하여 신암 5구의 빈민이 종교 없음이 더 많고, 기독교가 더 적었다.

85)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249.

86) 위의 책, p. 250.

87) 신암 5구 내에 있었다. 조사 대상 지역과는 300미터 거리였다. 수녀 병원으로 가격이 저렴하였다. 재단법인 대구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1956년 7월 2일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진료를 통해서 국민보건과 불우

원 2가구, 시립병원 1가구, 침구병원 1가구, 기타 2가구였다. 유흥권은 120가구 응답자 중 99가구가 전혀 극장에 가지 않았고(82.5%), 신성극장(칠성시장 옆) 12가구, 대구극장 2가구, 만경관 2가구, 동부, 국제, 시민, 아카데미 등 극장, 기타가 각 1가구였다. 생활권역을 분석하면 5개 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제1구는 신암동5구, 제2구는 칠성시장구, 제3구는 대구시 전역으로, 칠성시장구가 중심권을 이루고 있었다.[88]

신암5구는 외부 세계와 열려 있었다. 이것은 까사그란데와는 다른 점이었다. "남쪽 면과 북쪽 면은 높은 시멘트 담장으로 막히고 다른 두 면은 가게들로 가로막힌 이 베씬다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조그만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식료품점, 세탁소, 유리가게, 목공소, 미장원 그리고 동네시장과 목욕탕을 비롯한 가게들에서 이 베씬다드 사람들은 생활필수품을 사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동네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으므로 다른 시민들에게 낯설어 보인다."[89]

통학권은 초등학교는 아양초등(800미터 거리)이 81명, 신암초등이 2명, 옥산, 대봉, 동촌, 동인, 침산 등 초등이 각 1명, 기타가 4명이고(전체 92명), 중학교는 영신중(근거리) 3명, 계성중,[90] 영남중, 상희여중 각 1명이고(전체 6명), 고등학교는 영남고(기술), 영신고, 성광고 각 1가구(전체 3명)이었다. 10대 연령인 82명을 초등과 중고등 연령을 각 반으로 추정하면 중고등학교 적령아가 41명인데 9명밖에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교는 기술계통

환자구호,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치유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88)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p. 249-250.

89) 루이스, 앞의 책, 1997, p. 8.

90) 사립 명문학교로 학비가 매우 비쌌다. 아마도 납세자 21-30등급의 2세대 중의 한 세대이거나 장학금 등 다른 사정으로 입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을 포함해서 3명밖에 다니지 않았다. 9명 가운데서 여학생은 여중학생 1명밖에 없었다. 이것은 고등학교의 취학률(대략 6명 중 1명)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의 취학률(대략 4명 중 1명)도 매우 낮았음을 말하고, 더욱이 남자와 여자 간의 취학률이 크게 차이가 났음을 말한다.

신암 5구의 학력 수준은 까사그란데의 그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었다. 까사그란데 주민의 경우에는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성인이 열두 명이며 11년간 학교에 다닌 여자도 한 명 있고, 평균 취학연한은 4.7년이었으며, 빠나데로스의 경우에는 취학연한이 2.1년이고, 초등학교 졸업자는 한 명도 없었다(13). 산체스네 아이들은 까사그란데에서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헤수스는 비록 1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의 장남 마누엘은 초등학교 6년을 졸업했다. 꼰수엘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다시 직업학교를 3년간 다녔다. 로베르또는 초등학교를 3년만 다녔고, 마르따는 4년을 다녔다(14). 1956년 현재 멕시코시티 인구의 60%가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40%가 문맹이었고, 어린이들의 46%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91]

친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체는 120세대). 먼저 정의적 관계로서 한집 같이 지내는 집이 없음이 50세대, 1집이 51세대, 2집이 11세대, 3-4집이 각 1세대이고,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 집이 없음이 77세대, 1집이 34세대, 2집이 6세대, 3집, 5집, 8집이 각 1세대이고, 시장에 같이 가는 집이 없음이 99세대, 1집이 16세대, 2집이 4세대, 3집이 1세대이고, 형식적 관계로서 길흉에 초대하는 집이 없음이 82세대, 1집이 27세대, 2집이 7세대, 3-4집이 각 1세대이고, 만나면 인사하는 집이 없음이 21세대, 1집이 20세대, 2집이 13세대, 3-4집이 각 14세대이고, 가장 많은 집이 14집

91) 루이스, 앞의 책, 1997, p. 28.

(1세대)이었다. 신세를 지고 있는 집은 없음이 101세대, 있음이 19세대였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상의하는 집은 없음이 79세대, 1집이 22세대, 2집이 9세대, 3집이 10세대였다.[92]

가입 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상호친목계가 4가구, 상조계가 1가구, 비가입이 115가구였다.[93] 이를 보면 지역공동체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94] 이것은 이 지역이 철거민의 비율이 높은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969년 조사 결과로는 지역자원봉사단체의 설립과 관련되어 계모임(작은 규모의 적금 모임)을 제외하면 어떤 다른 자원봉사단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5] 반면에 까사그란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 베씬다드에서 15년 내지 20년씩 살아왔으며, 30년씩이나 살아온 사람 가족도 있다. "헤수스는 그곳에서 이미 20년 이상이나 살아온 토박이였다. 비록 그의 자식들은 그 동안에 출입이 무상하였지만 그의 단칸방은 그들 생활의 근거지였다."[96]

유력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구(신암동 5구 전체)에서 유력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9명씩 지명하게 한 결과, 모두 39명이 지명을 받았다. 전부 남성이었고, 3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는데, 40대가 가장 많았다. 4명 이상 지목을 받은 12명 중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은 동장(12명), 본지구의

---

92)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p. 254-255. 파벌이나 지방색의 유무에 대해서는 없음이 90세대, 있음이 19세대, 모르겠음이 17세대였다. 알력의 원인으로는 이남인과 이북인의 불융합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책, p. 255.

93) 위의 책, p. 256.

94) 사교성, 판단성, 협동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여 소시오그램을 작성하였다. 이 지구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5명의 클럽, 중위의 위치에 있는 16명의 클럽, 고립적 위치에 있는 31명 클럽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책, p. 263.

95) 이만갑·베린저, 앞의 책, 2012. p. 532.

96) 루이스, 앞의 책, 1997, p. 8.

서편에 위치한 조사 지구의 주민의 일부가 다니고 있는 조그마한 성냥공장주(11명)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지역에 거주하였다. 39명 중에서는 30명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유력자가 집중되었을 리가 만무하므로 이들이 아는 범위가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신암동5구에 두드러진 존재의 유력자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4명 이상의 지목을 받은 사람은 전부 동장이거나 과거에 반장직을 지냈던 사람들이다. 이유로서는 인격이 원만함이 52명(응답자 138명), 역직에 있음이 34명, 경제적 실력이 있음이 26명, 학식이 있음이 23명이었다. 유력자 중에서 실제의 영향을 미침에서는 역직의 작용이 가장 컸다. 유력자 중에서 실제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20.8%에 달하고, 모름이 8.3%에 달하였다. 이는 유력하다하더라도 이들의 영향이 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97]

이는 이 지역에서 아직까지 '유지'라고 불릴만한 토호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신암 5구의 주민들은 지역공동체가 취약했음(disorganization)을 알 수 있다.[98] 이것은 멕시코의 베씬다

97)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p. 258-260.

98) 신암 5구동 주민들이 근린조직이 취약하였다고 하는 것은 해방 직후의 특수한 상황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당시 대구의무노조위원장이었던 이원식의 회고이다. 1946년 6월 중순에 극심한 장마로 이재민이 속출하여 이들을 집단수용소에 수용하였다. 7월 초순에 대구의무노조가 특별이동진료반을 조직하여 빈민가와 이재민 집단수용소를 순회하면서 치료에 힘썼다. 이원식이 수용소 대표자들과 10여 차례 만나서 대구이재민상조회(위원장 정진영, 부회장 최상군, 총무부장 이상호, 고문 이원식)를 결성하였다. 7월 31일에 공회당에서 5천여세대가 참가하여 결성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해방 후 처음 맞는 광복절 행사를 대구역 광장에서 민전 주최로 개최하였는데 단연 이채를 띤 것은 대구이재민상조회 깃발 아래 수십 개의 프랑카드를 들고 2천 여 명이 참가한 것이었다. 이들은 각 단체 및 일반 시민으로부터 환호의 박수를 받았다. 한민당계는 달성공원에서 광복절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이원식, 「조국(祖國)이 부르는 벽밑에서(나는 사형수(死刑囚)였다)」, 1965(미간행).

드와 다른 점이었다.

> 이곳(까사그란데) 가구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 베씬다드 안에 혈연으로 얽힌 친척을 가지고 있으며, 4분의 1 이상이 인척이나 꼼빠드로스고(부모나 대부모, 대자녀 사이의 의례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11). 빠나델로스에서는 가족들의 반이 혈연관계이며, 모두가 꼼빠드라스고를 맺고 있다(13). 이러한 유대로 얽힌데다가 방세가 싸고 멕시코시의 주택난이 심각하므로 이곳 사람들은 여기에 눌러 살고 있는 것이다. 조금 소득이 높은 몇몇 집은 비좁은 방에 가구와 전기제품을 촘촘이 들여놓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갈 때를 기다리지만, 대부분은 까사그란데에 사는 데 만족하거나 심지어 자랑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베씬다드의 공동체 의식은 무척 강하며 특히 같은 패거리에 속하는 젊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교우관계를 맺으며, 같은 학교에 다니고, 안마당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 함께 참가하며, 혼인 상대도 흔히 이곳 안에서 고른다. 어른들은 서로 마실을 다니고 함께 나들이를 하며, 서로 돈을 융통할 만한 친구들을 갖고 있다. 이웃들은 제비뽑기나 운동시합을 벌이고 함께 순례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이 베씬다드의 수호자 축제를 준비하거나 크리스마스나 기타 다른 휴일이면 성가대를 조직하여 이웃집을 습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까사그란데의 공동체성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일을 꾸미는 것도 어쩌다 한번이지, 어른들은 대개 자기 일에만 정신을 쓰며,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애쓴다. … 특히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부조는 특기할 만한 것이 못 된다.[99]

신암 5구 주민들의 사회관계를 보면 근린의 해체와는 대조적으로 가족은 통합되어 있었다. 그것은 가족 구성에서 정상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 세대의 병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세대(5세대, 전부가 남성, 4명은 배우자 사별, 1명

99) 루이스, 앞의 책, 1997, p. 11.
100)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273.

은 선천적인 성불구자), 노인세대(2세대, 67세 여자, 12세, 3세, 2세 손자녀, 80대 남자 단독세대), 결손부부세대(남자 6건, 여자 16건), 무자녀세대(5세대), 불화세대(9세대, 부부간 7건, 부자간 1건, 모자간 1건),[101] 비행세대(4세대, 20대에서 절도 3건, 강간혐의 1건), 가출세대(2세대, 모두 소년 가출), 불구질병세대(44세대, 불구가 세대주 남자 17명, 세대주 외 남자 4명, 여자 8명, 질병이 세대주 남자 7명, 세대주 외 남자 1명, 세대주 여자 2명, 세대주 외 여자 6명) 등이었다.[102]

병리현상을 갖는 세대주가 주로 질이 낮고 영세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103] 세대주가 무업인 27세대 중에서 전연 병리현상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는 불과 5세대뿐이었다.[104] 신암 5구 조사 지역은 병리현상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가 42.7퍼센트이고,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세대가 41.9퍼센트로 나타났다(121). 불구질병세대의 수를 제외하면 병리현상을 가진 세대의 수가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신암 5구와 멕시코시티 베씬다드와의 차이는 혼인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다.[105]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부부가

---

101) 구체적으로는 남편의 축첩이 3건, 음주, 주정이 2건, 처의 성격 결함(포악), 음주, 주정이 1건, 아들의 도박벌, 폭주,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의 의사불소통 등이었다. "그 비율로 보아서 가족 내의 불화관계가 많이 보여진다고 운위되는 slum지역의 일반적 경향과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위의 책, p. 123.

102) 위의 책, pp. 114-117.

103) 직업에서 넝마주이는 단독세대 2명, 결손부부세대 3명, 불구질병세대 2명, 걸인은 단독세대 1명, 노인세대 2명, 결손부부세대 5명, 무자녀세대 1명, 불구질병세대 4명이었다. 위의 책, p. 119. 이를 보면 전체 넝마주이 5명, 걸인 11명이 모두 병리적인 세대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병리적인 세대에서의 넝마주이(7명)와 걸인(13명)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세대의 중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4) 위의 책, p. 119.

105) 일찍 성에 눈을 뜨게 되어 일찍 임신과 결혼, 출산을 하게 된다. 이것

까사그란데는 20%이고, 빠나데로스는 46%나 된다.[106] 헤수스 산체스는 5명의 아내(2명은 사별, 한 명은 도망)와의 사이에서 자녀 15명(아내가 데려온 자녀를 포함), 손자 36명, 증손자 43명을 두었다. 조사 당시에 헤수스는 세 집 살림을 하면서,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6. 결론

『영세민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그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정도, 직업, 수입에 있어서는 세대적인 향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개인이나 가족에서 오는 편기적인 결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빈곤의 재생산을 세대적으로 면치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라고 했다.[107]

그리고 "이 조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의 하나는 이 지역이 대중사회에 있어서의 동질적인 사회의 말단의 빈민층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이질적이고 극히 편기적인 slum인가를 밝히는 데 있었다"고 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족의 병리현상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결손, 불구질병을 제외한 다른 것은 그 수가 얼마 안되니, 이 지구에 두드러진 병리현상의 집중현상은 없는성 싶다"라고 하였다.[108] "이곳 주민의 빈곤은 개인이나 그 가족의 해체 내지 결함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빈곤은 일반적 빈곤을 나

은 취학연한이 짧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다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빈곤을 벗어나게 어렵게 된다.

106) 루이스, 앞의 책, 1997, p. 13.

107)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앞의 책, 1963, p. 129.

108) 위의 책, pp. 133-135.

타내는 것이라 하겠고, 특수적 빈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 지역은 도시 하층사회의 동질적인 빈곤층의 일단을 시현한다고 보여진다...이 지구의 빈곤이 필경 주로 일반적인 사회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109]

이에 따라서 『영세민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기본 대책으로 실업 문제의 해결(고용, 경제정책), 보충적 대책으로 생활 보호 제도 실시(사회정책), 임시적 대책으로서 저교육 밖에 받지 않은 자녀에 대한 기술교육(연초, 재봉, 죽세공 등) 실시, 헌신적인 지도자에 의한 지역공동체 건설(community organization), 건전한 노동능력을 갖는 세대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여러 '공사장' 동원, 건전한 노동능력을 갖지 않는 세대(노령, 불구질병, 유소자 세대 등)에 대한 경이한 가내노동 장려 및 알선 등을 제시하였다.[110]

『영세민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1960년대 초반 한국 대도시의 영세민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고, '미약한 지역 공동체 속에서 강력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이 함의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사회통합이 아니라 가족 통합에 의해서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 통합에 의한 탈빈곤을 지향한 가족을 '개발 국가'에 조응하는 '개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대책으로 제시한 실업 문제의 해결, 곧 '개발 국가'에 의한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시장(경제)적 통합이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적 통합 자신도 가족적 통합에 의한, 다시 말하면 '개발 가족'에 의한

109) 위의 책, pp. 275-276.

110) 위의 책, pp. 274-279. 조사보유편의 리더십에 대한 조사는 community organization의 문제 의식과 관련되어 있었다. 같은 책, p. 280. 여기서는 "사돈을 삼고 싶다, 동업을 하고 싶다, 한 동리에 살고 싶다. 길흉에 초대하고 싶다" 등 항목별 〈소시오 그램〉과 평가를 받는 세대와 평가하는 세대 교차표를 작성하였다.

노동력의 공급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곧 '개발 국가'와 '개발 가족'의 짝이 경제 발전과 가족 발전을 동시에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반숙련의 비중이 더 높았음(노동력이 부모 세대보다 우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부모세대 이상으로 저수입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아들이나 딸의 평균수입이 거의 같으며 딸의 활동이 상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녀 세대, 그 가운데서도 특히 딸들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게 시장에 제공하였음을 뜻한다.[111] 자녀 세대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준 것은 그들이 '유교가족'으로서의 '개발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산업화는 빈곤 청소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산업화도 개발 가족으로부터 값싸고 성실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개발 가족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에 공장에 갔다. 그러나 공장은 공동체는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거의 개인으로 존재했다. 오직 가족 공동체가 있을 뿐이었다.[112] 이와 같이 다른 공동체 없는 가족 공동체가 '개발 가족'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는 학교에 갈 기회가 많아졌다. 공장에 다니는 형, 오빠, 누나, 언니가 부모를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빈곤 가족 내에 장애인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은 사정을 감안하면 공장에 다녔던 사람들이 가족의 양육을 위

111) 위의 책, p. 129.

112) 1960년대 초반에는 비정규교육기관으로서 고등공민학교 등이 설립되어 공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공장 사이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하나의 사례를 전태일이 다녔던 '청옥고등공민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간으로서 교회가 있었다. 교회는 빈곤가족의 성인 여성에게 새로운 공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빈곤 가족의 여성이나 청소년이 교육연한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문해율이 높았던 것도 교회(특히 여성에게)와 비정규교육기관(청소년에게)을 통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해서 짊어졌던 부담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사회 통합 없는 가족 통합이 영세민 가족으로 하여금 빈곤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비용'이 따랐다.[113] 이 비용은 가족이 빈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장남'이거나 '딸들'-이 치렀다. 다시 말하면 '개발 가족'은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비용과 수익을 배분한 것이 아니었다. 곧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통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유교 가족'이라는 전통 가족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개발 가족 속에서 희생자들이 치른 '비용'에 대해 가족 내에서의 수혜자와 '개발 가족'에 빚은 진 사회 전체가 갚아나가야 한다. '비용'을 '개발 가족'과 희생자 개인의 트라우마로 남아서는 안된다. 그 트라우마를 가족과 사회가 치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희생자에게 전가된 '비용'을 가족이 나누는 진정한 가족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개발 가족이 짊어지는 비용을 사회가 껴안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출발은 '개발 가족'의 비용-윗세대의 아랫세대에 대한, 그리고 딸들의 아들들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글도 그 기억의 하나이다.[114]

---

113) '성공의 비용'이라는 논의는 재미한인 연구에서 나왔다. 이민자 1세의 희생 위에 이민자 2세가 교육 기회를 통한 전문직으로의 진출이라고 하는 '모범 소수민족' 신화의 배후에는 이민자 1세의 '희생'과 '세대 갈등'이라는 '비용'이 따랐다. Yoon, B. Jin-Sun, "Second Generation Korean Canadian Women: Historical Context of Ethnic Context", M.A.'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5.

114) 『산체스네 아이들』의 번역자 박현수는 1978년 초판의 서문인 "오스카 루이스와 빈곤의 문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것은 '개발 국가'와 '개발 가족'의 희생자인 빈민에 대한 기억으로 읽힌다.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도 산체스네 아이들처럼 스스로를 솔직히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도 가난한 이웃들의 참된 모습을 알려고 힘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자는 이 책을 소개하기로 결심하였다." 루이스, 앞의 책, 1997, p. 43.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영세민실태보고서: 대구시 신암동 5구」, 경상북도, 1963.
루이스, 오스카, 박현수 역, 『산체스네의 아이들』, 지식공작소, 1997(1978, 1쇄).

2. 논문

김경일,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제3집, 1986, pp. 203-257.
김록호, 「도시무허가 정착지의 일차보건 의료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5.
김승노, 「아동 작문의 영화화와 한·일 문화 교섭」,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41집, 2012, pp. 137-161.
노창섭, 「도시 Slum 지역의 사회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대문화논총』 제10집, 1967, pp. 111-138.
류시중, 「한국도시가족의 빈곤유형과 구호대책」, 대구시, 『시정연구』 제5호, 1974, pp. 52-77.
류시중, 「화이트칼라의 객관적인 지위」,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논문집』 제7집, 1963, pp. 397-411.
류시중, 「한국도시가족의 빈곤유형」,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논총』 제3집, 1972, pp. 543-578.
박경구, 「도시 빈곤지역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2집, 1985, pp. 33-51.
박경구, 「빈곤문화의 재고찰」,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12집, 1993, pp. 101-124.
박경구, 「빈곤문화의 존재유무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4집, 1986, pp. 73-89.
박윤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생활보호대상자의 빈곤문화 존재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제1집, 1998, pp. 110-128.
박진환, 「농가 이동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55.
배숙희, 「빈민지역의 형성과정과 공간분포」,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지역 빈민

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 연구』, 1994.
배용광, 「인간산맥의 저변을 가다② 내일에 사는 습지의 주민들: 대구시신암동오구의 빈민굴에 대한 실태조사보고」, 『세대』 1964년 7월호, pp. 236-251
배용광, 「산업사회학 연구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상백박사 회갑기념 논총』, 1964,
배용광, 「한국사회의 階層攷」,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18호, 1965, pp. 441-455.
안경욱, 「주거권쟁취를 위한 철거투쟁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제5회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원 NGO센터 학술대회, 『지역운동과 지역조사: 활동가 스토리텔링』, 2013, pp. 9-38.
이원식, 「조국(祖國)이 부르는 벽 밑에서(나는 사형수(死刑囚)였다)」, 1965 (미간행).
이철우, 「도시빈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적·계층적 이동」,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지역 빈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 연구』, 1994.
임재춘, 「문리를 트는 공부」, 1997(www.tec-writing.com).
정자환, 「서울 사당 2동 지역의 도시화 과정」,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제13집, 1982, pp. 117-137.
정필재, 「'임계점' 이른 빈부격차, 폭발하기 전에 해소하라」, 『뉴시스』, (2014. 6.23.: http://news.donga.com/)
조용훈·이광노, 「무허가 불량주거지에 관한 기존 연구의 동향 및 그 건축적 접근가능성」,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 3호, 1990, pp. 65-71.
조형, 「서울도심빈곤층의 생활실태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4집, 1984, pp. 37-63
최홍기, 「입학에서 전쟁까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60주년 편집위원회 편, 『다시 출발선에 서서』, 선인, 2006, 76-83.
학생사회학회 연구부, 「이대생의 계층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회, 『사회학연구』 제2호, 1963, pp. 155-178
허석렬, 「한국 무허가 정착지의 고용구조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사회학연구회, 『한국사회학연구』 제6집, 한길사, 1982, pp. 1-36.
Monique, Rise Redeaux, "Ghetto Rules: The Culture of Poverty Reloaded." Ph D.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11, pp. 1-424.
Yoon, B. Jin-Sun, "Second Generation Korean Canadian Women: Historical Context of Ethnic Context", M.A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5, pp. 1-412.

3. 단행본

경북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경북대학교 60년사』, 2012.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30년사, 1982-2012』, 2012.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5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 2004.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엮음, 박현숙 옮김, 『1940년, 경성의 풍경: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2010.
京城帝大 衛生調査部 編, 『土幕民の生活·衛生』, 岩波書店, 1942.
노창섭, 『도시영세민 지역사회조사 자료집계표: 서울동부이촌동을 중심하여』, 가족사회사업센터, 1965(비매품).
노창섭, 『한국도시지역사회의 연구: 서울 신촌을 중심으로』, 이화여대출판부, 1963.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지역 빈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 연구』, 대구사회연구소, 1994.
배용광, 『사회학산책』, 형설출판사, 1997.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오십년사 간행위원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오십년사 1946-199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96.
서형원 · 하승수, 『행복하려면 녹색』, 이매진, 2014,
양회수, 『사회학요강』, 신구문화사, 1960.
양회수, 『한국 농촌의 촌락구조』, 고려대학교출판부, 1967.
우보류시중박사정년기념논총발간위원회, 『우보류시중박사정년기념논총』, 1991.
이만갑, 『사회조사방법론』, 민조사, 1963.
이만갑, 『한국 농촌의 사회구조』, 한국연구도서관, 1960.
이만갑·이해영·이효재·고황경,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63.
이만갑·허버트 R. 베린저 편저, 김영화 외 번역, 『전환의 도시 대구』, 양서원, 2012.
이윤복, 『저 하늘에도 슬픔이』, 신태양사, 1965(1964, 8쇄).
전태일 지음, 전태일기념사업회 엮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전태일의 일기·수기·편지 모음』, 돌베개, 1995(1988).
早稻田大學 우리동창회 편, 『한국유학생운동사: 早稻田大學 우리동창회70년사』, 1976.
조영래, 『전태일평전』, 돌베개, 2005(2차 개정판 17쇄, 1983).

조은, 『사당동 더하기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해의 기록』, 또하나의문화, 2012.
조은 · 조옥라,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의 현장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1992, 4쇄).
Man-Gap Lee and Herbert R. Barringer eds. *A City in Transition: Urbanization in Taegu*, Korea, 1971.
Lewis, Oscar, *Five Families: Mexican case studies in the culture of poverty*, New York: Science Edition, Ins., 1962(New York: Basic Books, 1959).
Lewis, Oscar, La Vide: *A Puerto Rican Family in the Culture of Poverty:* San juan and New York, New York: Random, 1966.

[Abstract]

The Poor of Daegu City in the Early 1960s: The Comparison with 'The Children of Sanchez'

Lee, Dongjin

This study is a rewriting of a quantitative research of 1962 on a poor neighborhood in Daegu City by comparing the study with a qualitative research of 1956 on slum dwellers in Mexico City. The urban poor in 1960s' Korean metropolitan cities were found to "cherish hope even while suffering from severe poverty" and "retain family community without neighborhood or work community." This means that the poor of Korea could get out of poverty not through social integration but through family integration, and that the poor family of Korea was a 'developmental family' according with a developmental state. Then, what are the achievements and failures of 'developmental family'? Success is: the developmental family of Korea showed higher antipoverty rate compared with the family in case of 'the children of Sanchez'. Failure is: the developmental model driven by a pair of 'developmental state' and 'developmental family' had incurred 'costs for success' and eventually failed in reduc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at is, some members of a family could escape poverty in the expense of other members of a family. Now Korea needs to disintegrate 'developmental state' and 'developmental family', and should begin the task by remembering those who had been shouldered more burden by their family and taken less profits and then curing their trauma at community level.

Key words: the poor, shinam fifth dong, The Children of Sanchez, the culture of poverty, developmental family

이동진
소속: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주소: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전자우편: dojile@knu.ac.kr

이 논문은 2014년 10월 29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